

Story 12

박 * * 식품공학과 2020년 졸

한국농어촌공사 농학행정

- ▶ **합격기업** 한국농어촌공사
- ▶ **직무** 농학행정
- ▶ **스펙** 학점: 4.07
토익: 855점
- ▶ **인턴** 농어촌공사 인턴 5개월
- ▶ **공모전** 제 12회 대학생 창의력향상 프로그램 우수상
제 16회 2018 전남대학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우수상
- ▶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국제협력과 버디프로그램
- ▶ **아르바이트** 한국경제연구소 농촌관광활성화 보고서 작성/
지역축제 기획
- ▶ **기타** 학생회 부회장
- ▶ **자격증** 식품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국사1급





대학생활 스토리

대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학과행사는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농촌봉사활동 또한 처음엔 아무생각 없이 친구들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모판제작, 모내기 등 직접 농민들을 도와드리면서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며 일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번의 봉사활동이 아닌 3년 내내 농촌봉사활동을 가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나누어 일손을 돕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활동을 하며 전공을 살리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다가 농어촌공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1일 3가지 감사하는 노트**를 작성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습관화 되어 노트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기 전에 한 가지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생활을 하며 저의 한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대장이었던 저는 저희분대 이등병 두 명이 아파 대신 혹한기 훈련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발가락 골절**을 당했는데 골절된 발가락으로 행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면서 참고 버텨 **행군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일든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바로 영화관 아르바이트 대표업무를 맡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객 분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당황하였지만 경험들이 쌓이며 고객 분들이 감성상하지 않도록 규정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기에 미소 지으며 응대하였는데 고객 분께서 친절하다고 칭찬글을 올려주셔서 그달의 친절메아리가 될 수 있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접 모은 돈으로 생애 첫 해외여행을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위해 터키에서 경유를 하였는데 비행기 도착하기 5분전 공항에 폭탄테러가 일어나 말도 안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각국 외국인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모여들었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저의 영어실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영어 회화 반을 등록하였고 수업을 들으며 외국 대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해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동계해외파견을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으로 가서 영어를 사용하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소통하며 영어실력을 조금이나마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귀국하자마자 학과 학생회 부회장을 맡게 되어 학과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OT, 새내기 배움터, 엠티를 기획하면서 내가 직접 기획한 행사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기뻐하였을 때 저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엠티, 축제 주막운영, 과실 리모델링 등 많은 업무를 하였지만 그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학과캠프&제1회 동문회’**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과행사는 친목도모 성격으로 회식과 음주형태로 진행이 되어 그러

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과캠프 참석률이 낮았습니다. 참석률을 높이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취업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동의를 얻어 멘토링 형식의 캠프를 기획했고 **1,500명의 선배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행사안내와 참석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일 **10분의 선배님들을 모셔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회 이름 짓기 콘테스트**와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며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기획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에서 진행하는 버디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학생활을 통틀어 제일 재미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버디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대학생들이 한 조가 되어 오전엔 수업을 듣고 수요일과 주말에는 근교로 여행이나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1조 조장을 맡았는데 우리 조원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나 식당을 검색하여 같이 감으로써 많은 음식과 문화를 경험시켜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카페에 모여 영어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맛 집들을 다니며 밤새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쌓은 인연들이 한순간의 인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디프로그램을 했던 한국인 6명과 호주 버디들을 만나러 그해 호주여행을 2주 동안 갔습니다. 한국에선 우리가 구경시켜주고 이끌었었지만 호주에 가니 호주버디 4명이 공항에서부터 마지막 날 때까지 케어 해주었는데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왕복 8시간 거리의 관광지도 호주 버디들이 운전하여 편하게 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호주여행 이후로도 한국인&외국인 버디들과 상하이, 필리핀, 발리를 다니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마다 한두 번은 보는 여행메이트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공기업에 가기위해 기본 자격증인 한국사와 토익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사는 공부한지 한 달 만에 취득할 수 있었으나 토익은 학교공부와 병행하면서 공부하니 점수가 오르지 않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토익공부 경우에는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엔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작성, 3D모델링, 코딩, 일러스트를 배웠습니다**. 4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었는데 코딩이나 3D모델링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배워보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창업동아리에 들어가 팀을 구성하여 창업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아사망사고가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 팀은 **유아용 IoT제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유아의 체온, 심박, 맥박을 측정하여 어플을 통해 부모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팀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제품 디자인이었습니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발표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3D모델링, 배너디자인, 판넬디자인, PPT를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의 노력 끝에 저희 팀은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로서는 이루지 못할 결과를 팀원들과 함께 돕고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학년 때는 학점 또한 놓치지 싶었기 때문에 학점관리에 매진하였습니다. **2년간 all A+을 목표로 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엔 복습**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은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 물어가며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졸업

할 때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 겨울, 공기업 관련 자격증은 취득하였지만 어떻게 ncs를 준비해야하는지, 취업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예 몰랐기 때문에 선배님의 추천을 받아 **전남대학교 취업에이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취업에이스를 통해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기업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취업에이스에서 공기업반과 사기업반으로 나누어 팀을 구성해 주어서 ncs 강의를 공동구매해 신현의 자료해석과 하주응의 문제해결능력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매일 ncs 모의고사를 풀며 감을 익히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업에이스를 하며 **'광주일경험드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들과 함께 광주일경험드림에 지원하였고 저는 목표로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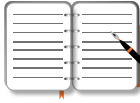
농어촌공사 인턴을 하며 제가 맡은 업무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수위계측기로 측정된 농업용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홍수 경계/위험지역을 분류하여 문서화하는 업무였습니다. 인턴활동을 하며 제가 목표로 하는 기업의 분위기나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끼리 상호 존중하는 기업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더욱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인턴을 하면서도 같이 인턴 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구성하여 ncs를 풀고, 퇴근해서는 백도로 가서 전공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왕복 3시간씩 걸리는 출퇴근시간에 잠을 자며 체력관리를 하였습니다.

인턴이 7월 31일날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공공부를 하며 농어촌공사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농어촌공사 필기시험에서는 ncs점수는 충족하였지만 전공점수가 낮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전공공부를 더욱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탈락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 때에 **한국경제연구소 연구보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암군청 친환경농업정책팀 공무원들과 협업하며 농촌관광활성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였는데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기반시설을 검토하며 관광객 유입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느낀 점은 조금이라도 빨리 목표로 하는 기업을 정하고 그 기업에 피팅된 활동들과 경험들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로 하는 기업을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학년 때 다양한 대외활동들을 해 둔다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은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농어촌공사를 목표로 한 것은 4학년 때부터였는데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농어촌공사에 맞추어 가공하였습니다. 목표를 정한 후부터는 그 기업에 관련된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성면접 당시 자신의 강점을 물어보는 질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인턴 한 경험은 어떤 지원자보다 큰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관님도 인턴, 연구보조, 학생회부회장, 농촌봉사활동, 창업동아리, 버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들을 보며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언급해주시며 어떤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면접 스타트를 쉽게 풀어가갈 수 있었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각종 질문들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목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전남대학교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기소개서 (한국농어촌공사)

1.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의 역량 및 강점을 공사의 4가지 인재상(전문성, 소통능력, 고객감동, 혁신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시오.

☞ 탄탄한 농업 전문성은 소통을 위한 양분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농지를 팔려고 알아보던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위탁받아 연금처럼 돈을 받고 이 농지를 젊은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농지 활용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혁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농지은행 사업이외에도 우리 공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알리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식품공학과 생명화학 지식을 기반으로 농업현장실습과 3년간의 농촌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농업정책팀 공무원들과도 소통하며 농어촌 관광활성화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문의나 민원인 응대 시 관련지식을 기반으로 소통능력을 잘 발휘하여 농어촌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시오.

☞ 엑셀을 활용한 농업용수관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필요한 역량은 문서처리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자동수위계측기로 측정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것을 토대로 홍수 위험/경계 저수지를 분류하여 문서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엑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퇴근 후 유튜브를 보며 실무능력을 길렀습니다. 차장님께서 4시간 내로 전국 1,890개 저수지에 대한 데이터 개수를 본부와 지역별로 취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countif 함수 등을 활용하여 예상 시간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차장님이 원하는 틀대로 데이터 표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근무를 통해 제가 목표로 하는 기업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필요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이는 빠른 업무적응에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3.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이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견차이 좁히기

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직을 맡으며 과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닥부터 벽지까지 손수 진행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배치방식 부분에서 저와 회장이 의견차이가 생겼습니다. 회장은 기존의 과실배치와 같은 입식으로 꾸미자는 의견이었고, 저는 이와는 다르게 좌식형식으로 꾸미자고 제안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 저는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3D모델링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간단한 가구배치도를 디자인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좌식으로 한다면 의자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원들이 과실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로 회장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식배치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다른 과실과 다르게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4.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인 농어업분야 관련 이슈 중 관심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본인의 의견과 공사의 역할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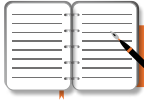
새만금간척지의 관광농업 실현

저는 **새만금 간척지를 이용한 관광농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로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2020년 9월 말부터 밀재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넓은 새만금 농업단지는 미국과 같이 파종재배수확까지 기계화 재배가 필수적이므로 단순한 밭농사가 아닌 드론, 스마트팜을 이용하여 기계화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농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한다면 지역관광지-농촌-먹거리를 하나로 크게 아우르는 관광농업을 실현시켜 농민들의 실질적 삶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관광 방문객 유치 확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사가 새만금 관광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시지원경험 (한국농어촌공사 농학행정)

가. 인·적성 검사 후기

농어촌공사 인적성시험은 지방에서는 없으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당일 날 새벽에 KTX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혹시 모를 연착에 대비하여 전날 밤에 올라가 시험장 근처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인적성시험은 출제사에 따라 유형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출제사가 커리어케어로 피돌형식으로 나온다고 하였지만 실제 풀어보니 대기업 인적성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20년도에는 출제사가 테드솔루션으로 모듈형식의 회사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인적성시험은 피돌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은 주제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요약,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리는 그래프해석 3문제정도 나머지는 다 응용수리였습니다. 문제해결은 추리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거짓 밝히는 문제가 많이 나와 시간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제해결은 거의 짝은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는 기본서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과 시차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보파트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모듈형문제도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저는 테드솔루션 출제사에서 쌍모듈형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교수용 자료집을 획득하고 '마법의패스'와 '고시넷'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쌍모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PSAT형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출제사가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전공보고 나서 ncs를 따로따로 시간을 주고 풀었지만 20년에는 전공과 ncs가 통합되어 조금 더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전공이 200점 만점이고 ncs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전공에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ncs는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험 본 과목은 농학이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농학은 재배학 위주로 공부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학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재배학을 끝내고 시간이 되신다면 **식용작물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당황했던 이유는 축산쪽 내용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처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cs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에이스를 통해 해주응과 신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문제풀이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cs스터디는 19년도에는 월·수·금 계속 하였지만 20년도부터는 하지 않고 혼자 시간 재며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산하는 감이 떨어지지 않게 비타민을 매일 풀었고 빠꼼이를 7회독하며 응용수리 부분을 다졌습니다. 7회독을 하여도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응용수리 부분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빠른 풀이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면접후기

면접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가 있는 나주에서 진행됩니다. 각 전형마다 직렬마다 날짜와 시간이 다릅니다. 이번 면접은 하루에 3타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타임은 8:30, 두 번째 타임은 12:20, 세 번째 타임은 14:50 까지 입실이었습니다. 입실 전에 대기실에는 못 들어가서 대기실 밖에 있는 좌석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면 입실하였습니다. 저는 14:50에 입실하여 자격증 서류를 제출하고 핸드폰을 제출하는 데에 20분 정도 소요되고 면접은 15:5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핸드폰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 프린트해온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PT면접을 먼저 진행할 조와 인성면접을 먼저 진행할 조를 선정해서 말해줍니다. 19년도에는 인성면접 15분, 토의면접 30분, PT면접 5분이었던 20년도에는 인성면접 30분, PT면접 10분으로 토의면접이 사라지고 인성과 PT면접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 인성 면접

인성면접은 3:3 면접으로 진행되며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관과 면접자 사이에는 사람이 있는지 얼굴 확인할 때만 마스크를 내렸고 면접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인성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각 면접관님들 마다 스타일이 다르신 듯합니다. 제가 들어갔던 면접에서는 길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면접관님이었으며 답변을 할 때마다 조금만 길어진다고 싶으면 가차 없이 컷트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이 본 면접에서는 답변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은 답변을 연습하고 준비할 때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만 듣고도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컷트를 당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컷트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면접을 할 때 처히 조는 1분자기소개를 시키진 않았지만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물어보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면접 처음 시작할 때 **1분 자기소개 대신 자신의 강점을 1분 이내로 짧게 말해주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상황질문, 지원동기** 등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지만 답변에서 이어지는 꼬리질문에 많은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통해 이미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면접관님 한분이 경력&경험으로 적었던 제가 했던 많은 활동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거기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하였습니다. 자소서 작성할 때부터 성의 있게 작성한 것이 면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 PT 면접(3:1, 면접관 3명)

PT준비 10분, PT발표 3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기위해 3명씩 3조로 구성되어 면접대기실에서 회의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회의실에서는 각기 다른 직렬 A조, B조, C조의 첫 지원자가 PT를 작성하는 10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니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PT작성은 각 A조, B조, C조 책상위에 종이가 올려져있는데 면접도우미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다음 장으로 넘겨 주제를 확인하고 PT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T는 A4종이 한 장에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제에 딸린 한 두 줄짜리 자료가 있는데 저는 바로 주제를 확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PT발표할 때 주제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A4용지 맨 위에 주제를 적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T작성이 다 끝나고 나서는 회의실에서 나와 대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선 면접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시간은 2분정도 소요됩니다. 면접관들이 평가가 끝나고 도우미를 통해 알리면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인사먼저 하고 앉습니다.

앉자마자 PT발표를 시작하라고 말씀해주시면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PT 구성방식을 본인소개 및 발표순서안내(20초), 대응방안 3가지(2분), 마무리(20초) 정도로 3분의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맞추는 것이 어렵지만 스티디를 통해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분량을 적어야, 어느 속도로 말을 해야 3분을 맞출 수 있을지 익힐 수 있습니다.

PT질문은 제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원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산자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저는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핀트가 나간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 답변 시간이 남아 면접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대응방안 중 한 가지로 공사가 운영하는 **동반성장물을 언급**하였는데 동반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 발표한 것의 정의나 의미를 잘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발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인성에 관한 질문이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에 관해 전반적인 지식을 사보나 기사를 보며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안보고 면접관님들을 보며 발표하는 것이지만 저는 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이를 보며 발표하였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최대한 면접관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면접장에 의자와 책상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종이를 보고 읽을 때 얼굴을 가리지는 않고 팔이 책상 위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약간 들고 발표하려고 하였습니다.

다. TIP

면접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매우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으시다면 **경험정리 먼저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난다면 스티디 모집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픈카톡방을 통해서 빠르게 스티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스티디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티디 운영 방식은 초반에는 사보를 읽으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최근 농업에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팀원 별로 한 개의 달을 맡아 요약하여 취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보 정리가 끝난 후부터는 개별적으로 인성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PT발표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은 행정끼리, 기술직은 기술

직끼리 모여 주제를 정하고 발표할 때는 같이 들으며 피드백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를 하며 많은 질문들을 받고 다른 지원자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많이 생각해보았고 연습을 하다 보니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인성부분에서 경험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인성부분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팀원들에 비해 부족함을 느껴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갔습니다. 저는 방향과 준비방법을 알기 위해 **백도 전문취업컨설턴트 선생님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신청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갔고 선생님께서 멘탈 관리와 떨어져가는 자신감을 붙잡아주셨습니다. 취업상담을 받으며 답변의 질 또한 깔끔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로 힘들어 하는 학생 분들은 전남대학교 취업컨설팅 신청하여 도움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